

■ 영화를 보고 ■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영화 <The Woman, the Orphan, and the Tiger>

박정형

<여성, 고아 그리고 호랑이(The Woman, the Orphan, and the Tiger)> (2010)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영화는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에 한 생존자가 증언을 하러 단상 앞으로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할머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딸’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다. 설움에 복받쳐 울부짖다가 끝내 쓰러지고 만다. 일련의 상황들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느린 화면으로 전개된다. 이 장면은 그 어떤 결정권도 갖지 못한 채 다른 나라에 강제적으로 이주당해야 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미군정 및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적 경제성장 논리 속에서 여성의 성은 성매매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빈곤 여성들’이 동원되었고, 그들의 아이들은 입양을 통해 강제 이주했다. 그 숫자는 통산 20만 여 명에 이른다. 입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발전과 번영의 욕망에 사로잡힌 어두운 역사는 오랫동안 이야기되지 않는다. 한 용기 있는 위안부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결심하기까지 위안부 여성의 존재는 알면서도 쉬쉬하는 금기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언제나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묵음으로 처리된 첫 장면은 영화를 보고 있는 나에게 소리 없이 말을 건다.

난 여기 있어. 그리고 말하고 있어. 온몸으로 말하고 있어. 그런데 넌 내 목소리가 들리니?

이제 “나는 입양되었다”로 시작하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자신이 입양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한다. 그러다가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또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서로 겹치기 시작한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서로 합쳐져서 이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서로 다르지만, 한데 모여서 소리의 덩어리를 만들어 냈던 여성들의 목소리는 입양된 아이들이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집단으로 영어 교육을 받고, 미국에 도착해서 즐겁게 영어로 된 노래를 합창하는 소리로 이어진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의 개인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위안부’, ‘기지촌 양공주’, ‘입양된 사람들’은 영화 속 표현대로라면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영화는 계속해서 그들을 이주하게 만들었던 한국의 과거와, 그들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현재를 교차해서 보여준다. 이들이 기억하려는 ‘한국’과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형성해내는 현재의 ‘한국’을 보는 것은 나에게서는 낯선 경험이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게 지나치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입양인’이라는 기억의 저편들을 떠올리게 하는 무엇이다.

영화에서는 ‘출몰한다(be haunted)’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내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섰던 공항,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친숙한 곳으로 왔다는 안도감이 들었던 그 ‘공항’은 그들에게는 언젠가 자신들이 한국에서 떠났던 그 최초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는 공간이다. 밤을 밝히는 교회의 빨간 십자가들은 그들이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미국 선교 단체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표식들이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보면서 자긍심을 가질 ‘한국인’과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의 배제를 쓰라리게 되새긴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한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낯설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느껴지는 표식이나 장소들이 그들에게는 불현듯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기억을 불쑥 불쑥 ‘출몰’하게 하는 것들이다.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들의 기억을 출몰하게 만드는 것은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인’들과 다른 언어를 쓰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는 때 순간이기도 하다. ‘영어’를 한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들이 입양이 되었다는 것은 동경의 대상이다. 이런 이중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말한다. “우리의 ‘분절된 한국어(broken Korean)’는 도대체 누가 들어 주느냐”고. 이 대목은 나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듣고 인식하여 기억하는 ‘소리’들, 어눌하고 어색하여 시끄럽다고, 귀에 거슬린다고 ‘소음’으로 치부하여 잊고 말았던 소리들. 그것은 언젠가 어디서 들었겠지만, 내가 ‘소리’로 인식하지 못했을 그들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귀에 들려서 인식 가능한 익숙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은 다시 처음의 그 ‘소리’들로 돌아간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영화는 말한다.

난 여기에 있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너, 이 목소리가 들리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lumosist@naver.com